

숲으로 공간 꾸미는 박재경 스타일리스트

# 숲의 질감과 빛깔을 멋으로 승화하다



숲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에 좋은 약재나 장식물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중금속을 중화하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해충의 접근을 막는 방충제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시대가 되면서 생산이나 소비가 줄어들어 주로 고기 구워먹는 용도로만 쓰이게 되었다. 그런 숲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숲을 이용한 건강한 인테리어 하는 박재경(46) 스타일리스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 인테리어 요소가 되는 숯을 아세요?

‘본초강목’에 따르면 숯은 흠에 묻어 두어도 썩지 않고 집안에 숯을 묻어 두면 해충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집에 숯 꾸러미를 세워 두면 인체에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인테리어 소재로서의 숯은 그 안전성이나 유용성이 이미 고대에 인정된 셈이다.

“저는 숯의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해서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단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것을 꽃이라든지 다른 식물들과 같이 배치했을 때 잘 어울릴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예요.” 스타일리스트이며 플로리스트이기도 한 광재경 씨가 숯에 주목하는 점은 이미 알려진 건강효과에 덧붙여 소재로서의 활용도이다.

“숯 자체가 주는 심미적인 효과도 있어요. 건강에 좋은 효과 외에도 숯의 질감과 빛깔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미적 정화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유학시절 처음으로 숯을 이용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광재경 씨는 숯이 건강 기능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재로도 큰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사무실 안에 작은 가든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소를 숯과 꽃들을 이용해 꾸며보고 싶어요. 답답한 사무실에 시각과 환경 효과가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최근 숯을 이용한 인테리어 제품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잘 살리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숯은 참 다양한 느낌을 가진 소재예요. 일단 다양한 모양으로 커팅을 해 색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갈았을 때 까끌까끌한 촉감이나 반짝거리는 모습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광재경 씨는 숯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을 잘 활용하는데 갈아서 벽에 바르거나 욕실에 배치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숯으로 공기 정화도 하고, 삭막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요즘은 숯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숯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고기 구워먹는 숯은 약재로 쓰이는 숯과 차이가 있거든요. 좋은 숯은 생산하는 장인도 별로 없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구하기가 쉽지 않죠.” 공기 정화 기능이나 건강에 좋은 기능을 하는 숯은 생산이 많이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구매하거나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광재경 씨는 좋은 숯들을 찾아내고 중개하는 것도 스스로 몫이라 생각하고 있다.

“사무실 안에 작은 가든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소를 숯과 꽃들을 이용해 꾸며보고 싶어요. 답답한 사무실에 시각과 환경 효과가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현대인들을 위해 작은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미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의 두 요소를 어우러지게 하고 싶다는 광재경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MEDI<sub>CHECK</sub>**